



### 고사리 손으로 빚은 '한가위 추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IMF때와 같은 극심한 경제 불황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동실 떠올랐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꿈꾸며 많은 이들이 소소한 소원을 빌었을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짧은 한가위 연휴를 끝내고 속속 재직리로 돌아온 사람들, 몸은 피곤해도 명절의 여유와 고향의 포근함을 가슴에 가득 담고 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고온 고향이 더욱 그리웠을 이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형민, 군복무에 비상근무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군인·소방관·경찰관들. 그리고 타국 생활을 하느라 쉬이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한가위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광주교육대 다목적체육관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추석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민자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명절의 흥겨움을 느꼈습니다. 이날 엄마를 따라 나선 한 꼬마 녀석은 의젓하게 송편을 빚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글동글 송편을 빚는데 몰두한 꼬마는 제법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 주위 어른들에게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들이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이방인이 아닌 한 가족이 되어 꼬마가 빚어낸 송편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름보다는 웃음이 더 많은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갑니다.

### 오늘의 유머

**▲어떤 고민**  
늘 1.8~1.9 사이의 화점을 받던 한 친구가 마침내 2.2를 받았다.  
“드디어 2.0의 고지를 넘었구나 축하한다.”  
“오호러 더 걱정이다.”  
궁금한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다.  
“우리 부모님은 2.0이 만점인 줄 알고 계시거든.”

**▲당신의 직업은?**  
기구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발 한복판에 불시착했다. 그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당신은 발 한복판에 있는 기구 안에 있지 않소?”  
기구안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회계사인 모양이군요.”  
남자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소?”  
“당신이 한 말은 정확하긴 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머느리와 시어머니**  
한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외출을 했다. 아주머니는 상대 운전자가 길을 양보해 줄 때마다 고마움의 표시로 손을 한번씩 들어주었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집에 가서 아들에게 말했다.  
“머느리 함부로 밖에 보내지 말아라. 글썽만나는 남자마다 손을 들면서 아는척 하더라.”

**▲양속지간**  
만나면 항상 으름장거리리는 두 친구가 우연히 바에서 만났다. 마지못해 한자리에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또 말싸움을 시작했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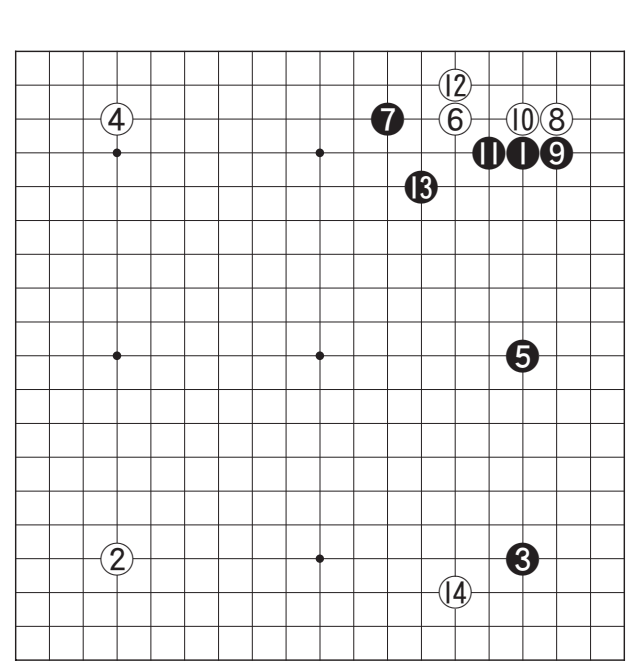
화를 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상대의 대머리를 만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거 꼭 우리 마누라 불기짝 같은 그레!”  
그러자 대머리 남자는 자기의 머리를 만져 보더니 비웃는 말투로 대답했다.  
“정말 그렇군, 정말 그레!”

**▲황당한 궁금증**  
-닭장 속에는 닭이, 토끼장 속에는 토끼가, 그런데 모기장 속에는 왜 사람이 있는걸까?  
-‘세월이 약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한다. 그렇다면 양력은 양약이고 음력은 한약일까?  
-장남에게 시집 안 간다는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면 차남부터 낳을 자신이 있다는 걸까?

**▲나이 많은 사람**  
한 신참 경찰관이 경험이 많은 고참 경찰관과 차를 타고 순찰에 나섰다. 시장 앞을 지나가다 보니 두 상인이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른 상인들과 장을 보러온 아줌마들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큰 소리로 싸움에 참견을 하고 있었다. 신참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순찰차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어떻게 해서 싸움이 시작됐나요?”  
그러자 여자들은 일제히 뭐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고참 경찰관이 능숙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조용히들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이야기해보세요!”  
그러자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다.

**▲꿈보다 해몽**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임용 될 날을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리던 남자에게 어머니가 간밤에 꾸 꿈을 얘기했다.  
“어제 밤에 대통령이 나타나 ‘곧 국가의 부름이 있을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과연 그 다음날 그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그의 앞으로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나왔다.

### 제17회 光日盃



**대망의 결승전**  
개인전 결승전 1보(1~14)  
白 박광주 5단    黑 김영수 5단  
(포스코)                  (전남교사회)

드디어 직장바둑 동호인들의 꿈이자 희망인 대망의 결승전이다. 이번 대회의 결승에는 왕년의 기라성같은 우승자들은 모두 탈락하고 우승후보로 꼽히지 않았던 다크호스들이 드디어 한껏 허물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등장하여 직장바둑의 판도를 흔들며 놓고 있다.

흑을 든 김영수 5단은 언제나 강자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우승컵과는 그동안 인연이 없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죽지세로 승점을 쌓으며 전남교사회를 일약 단체전 우승의 왕좌에 올려놓고 여세를 몰아 개인전마저 휩쓸 기세다.

백을 든 박광주 5단은 동부권의 강자로 그동안 포스코가 직장바둑의 강자로 군림하는 데 핵심이 되어왔다. 그동안에는 개인전과 인연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강자들이 모두 탈락하는 등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여 우승컵에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두 대국자는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최초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게되는 셈이다.

김영수 5단은 긴장된 얼굴로 3연승을 들고 나오자 박광주 5단은 정석대로 6로 걸치고 13까지를 결정한 다음 14로 걸치겠다. 이것은 흑의 모양을 우변에 국한시키려는 작전의 의미가 우변에 대모양을 펼쳐더라도 일방가의 의미가 있어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과연 흑의 다음 한수는 어디일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36년생 힘든 아내를 살펴봐라. 48년생 직장과 자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0년생 자녀는 자식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2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라. 84년생 수하인과 관련된 문제는 풀릴 거라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45	37년생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49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삼 것이다. 61년생 편안한 하루가 될 것이니 안심하고 지내라. 73년생 술이 기분 하루로다. 85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행운의 숫자 : 03,26	38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50년생 오전은 흥하나 오후는 길하다. 62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74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 09,40	39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51년생 도움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63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5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라. 행운의 숫자 : 07,25	40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 용감하게 진행하라. 52년생 뒤로 주고 앞으로 받으라. 활동이 많아 하라. 64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76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1,38	41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편안하다. 53년생 허황된 문신만 조심하면 대수는 없다. 65년생 부부사이 이해있는 대화와 사랑스런 자녀를 살펴봐라. 77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5	42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면 실패는 없다. 54년생 부부간에 다정한 시간을 마련해 보라. 66년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 보라. 78년생 주변의 이득과 친척을 찾아볼 것 안부를 확인 해봐라. 행운의 숫자 : 05,20	43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라. 55년생 친한 사람을 알아보지 마라 흥한 일이 생긴다. 67년생 추추고 노래를 하니 즐겁지만 하라. 79년생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도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3,12	44년생 오후에 화재를 주의하라. 56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수어라. 68년생 어려움이 오지만 심성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80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1,35	45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57년생 오늘은 문답속을 잘해야 하라. 69년생 불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1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4,44	46년생 귀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다. 58년생 남과 딸다툼은 시비로 비화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70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무리가 없다. 82년생 저녁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40	47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으나 기쁨은 미미하다. 59년생 숙전숙결로 추진하면 대제가 생긴다. 71년생 외려내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83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편안 하라. 행운의 숫자 : 01,38

www.cafe.daum.net/sajoo114 ☎1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146>	오하오우 니혼고 <1146>	니하오 쯡구위 <223>	한자 이야기 <863>
<p><b>That's what I forgot!</b> 그것을 깜박 잊고 있었네요</p> <p>A: When is Mary coming over? B: At 6. A: Is she going to eat with us? B: That's what I forgot! I've got to ask her about dinner.</p> <p>A: 메리가 언제 올까요? B: 6시에요. A: 저희와 함께 저녁을 들까요? B: 그것을 깜박 잊고 있었네요. 저녁을 들것인지 물어 봐야겠어요.</p> <p>* 자네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야해. = You've got to complete the project. * That's what ~ = 그것이 바로 ~이라고.</p>	<p><b>やたらとカタカナの言葉が目(め)につくよ</b> 무질서한 가타카나가 눈에 띄어요</p> <p>A: 最近の新聞や雑誌をよんでると、やたらとカタカナの言葉が目(め)につくよ。 B: うん、外国語をそのまま使うことが多くなったね。 A: 専門的な言葉は、日本語に譯(やく)すりの方が簡単だからね。 B: でも、本當にわかりにくい言葉が多いよ。もっと日本語を大切にしてほしいな。</p> <p>A: 최근의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무질서한 가타카나가 눈에 띄어요. B: 응,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많아져서, A: 전문적인 말은 일본어 번역하는 것 보다 그 쪽이 간단하니까. B: 하지만, 정말로 알기 힘든 말이 많아요. 일본어를 더 소중히 했으면 좋겠네요.</p> <p>* 新聞(しんぶん): 신문 * 雑誌(ざっし): 잡지 * やたらと: 함부로, 무턱대고</p>	<p><b>星期天你去哪里?</b> 일요일에 당신은 어디 갑니까?</p> <p>A: 星期天你去哪里? xīngqītiān nǐ qù nǎlǐ 성요일엔 어디 가니? B: 去公園。 qù gōngyuán 공원으로. A: 几点去? jǐdiǎn qù 几点엔? B: 上午六点半去。 shàngwǔ liùdiǎnbān qù 상오 6시 반에 갑니다. A: 要不要去? 당신은 어디 갑니까? B: 当然要去了。 A: 몇시에 갑니까? B: 아침 6시 반에 갑니다. 星期天 [xīngqītiān] 일요일</p>	<p><b>木人石心(목인석심)</b> 나무 목, 사람 인, 돌 석, 마음 심</p> <p>목인석심(木人石心)은 나무와 같은 사람 돌과 같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나무나 돌처럼 심자가 굳어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을 비유한다. 권력, 부귀, 여색 등 세상의 유혹에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목석(木石)'이라고 줄여서도 사용한다.</p> <p>서진(西晉)의 태위(太尉)였던 가충(賈充)이 도성 밖 휘하(洛河)에서 봄나들이를 하다가 회계군(會稽郡)태생의 하통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하통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세속이 싫어 시골에 묻혀 살았다.</p> <p>가충은 하통에게 배를 부리게 해보고 또 노래를 시켜보고는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가충은 그를 수하에 들으로써 자기의 위세를 드높일 속셈이었다.</p> <p>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여주고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면 그 지휘권을 맡아줄 것이라고 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p> <p>그러자 이번에는 요염한 무희들로 유혹하였으나 하통이 넘어가지 않았다. 율화통이 터진 가충은 "지위·권세·여색 세 가지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놈은 세상에 없을 것이나, 이 사람은 정말로 나무로 만든 사람이고 돌로 만든 마음(木人石心)이군"하였다. (晉書, 賈充傳)</p>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 A)〉 ☎ 383-1605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